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건설에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건설한 구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왜 이렇게 길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은혜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깨닫게 하기 원했던 공동체 회복의 원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보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양문을 중심으로 성벽 건축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양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문으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을 의미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수많은 문들과 망대 중에서 양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의 핵심이 예배가 무너진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예배가 세워져야 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작은 부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많은 부분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많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둘째,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 됨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지만, 비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것, 지시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75명의 팀장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벽을 짓는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성벽 재건을 진행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빨리, 잘 짓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공동체로 회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다음에’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ext him, next them 이라고 번역 되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위대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많은 일들이 혼자 하는 것, 혹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회복은 헌신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는 연합-15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다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3장의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각자의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8(월)	11/9(화)	11/10(수)	11/11(목)	11/12(금)	11/13(토)	11/14(주일)
눅 23-24	요 1-3	요 4-5	요 6-7	요 8-9	요 10-11	요 12-13

QT

이번 주 QT 말씀

11/8(월)	11/9(화)	11/10(수)	11/11(목)	11/12(금)	11/13(토)	11/14(주일)
옵 20:12-29	옵 21:1-16	옵 21:17-34	옵 22:1-20	옵 22:21-30	옵 23:1-17	옵 24:1-2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3.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결단할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